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수요예배 - 행정위원 헌신예배
5월 16일 수요예배는 행정위원 주관으로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행정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주 친교
이번 주 친교는 아버지 주일로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다음 주 친교는 플러싱 구역입니다.
- 부흥회 안내(5월 25~27일)
강사: 김영진 목사(베다니 장로교회)
주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시37:34).
부흥회 주간 주일 세미나 안내
제목: 위기 관리 및 Golden Turning Point
강사: 김영진 목사, 김윤옥 사모 - 시간: 주일 오후 3시

5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예배	친 교	안 내
5/13		류흥덕	교회	한순자
5/20	송 섭	우영이	플러싱 구역	한순자

예배 및 모임 안내

모 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친교실
주일예배(2부)	주일 오후 1시 15분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주일학교	주일 오후 1:15	친교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11시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1층 친교실
	목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오전 8시	

주일설교 요약

제목 : 여인의 두 아들

본문 : 열왕기하 4장 1~7절

기도제목 : 1.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
2. 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쁨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3. 우리의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빈곤층 4620만 명으로 이 숫자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52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풍요의 나라 미국의 빈곤 문제도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속에도 참으로 어려움에 빠진 가난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후보생, 전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과 살아가는 불쌍하고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죽었고 과부로 살아가야 하는데, 빚에 쫓겨 이젠 얼마 안가서 빚쟁이에게 아이들마저 빼앗기게 될 비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과부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호소를 하였습니다. 이 호소를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불쌍한 과부의 사정을 듣고 그릇을 준비하라고 명한 후에 그들이 준비한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베풀므로 과부의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과부의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가난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과부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과부는 남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곧 아이들마저 빼앗길 수 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탄탄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며 정신을 놓아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어쩌면 이야기 속에 과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해야 할 것!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겪는 문제들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과부를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준비된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시는 방법으로 과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이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님께 주신 기름이 얼마나 비싼 기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과부의 사정을 보고 도움을 주시는데, 좀 희미하게 풍족하게 넘치도록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길 않고, 딱 어려운 사정을 해결할 만큼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한 그릇에 기름이 아니라 좀 더 비싼 것으로 채워주셨으면 어떨을까? 예를 들어서 금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채워 주셨으면 어떨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왕 기적을 베푸실 것인데, 좀 값싼 것으로 해 주시면 좋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넘치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루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내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에 관하여서는 딱 그만큼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질의 궁핍함 속에서도 또한 이런 저런 문제 속에서 하루 하루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엘리사의 기적으로 살게 된 이 과부의 그 후의 삶에 관한 부분입니다. 본문에는 그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을 어떻게 되었을까? 기적으로 얻은 그 기름이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기름이 떨어졌을 때, 또 엘리사를 불러서 기름을 채웠을까요? 이 과부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남편은 죽고 누가 남아 있나요? 열왕기하 4장 1~7절까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내 두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보살 것 없어 보였던 기름 한 병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름 한 병을 통해서 과부의 가정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아들이 팔리지 않고, 이제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과부뿐 아니라, 그들의 품 속에 있었던 두 아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과부가 겪었던 가난과 어려움을 두 아들도 겪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이우에 그릇도 함께 빌려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한 두 아들은 과부에게는 그 어떠한 보물보다 금보다 더 값진 보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모들과 함께 체험한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다면 우리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가정, 부모님과 가정에서 함께 체험한 신앙을 통하여 함께 자라나고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 헌금통계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회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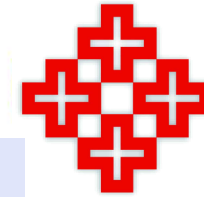
교육전도사 김차인 김호진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Address: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2018년 5월 13일



SAVIOR
세이비어 CHURCH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30분(1부) 오후 1:15분(2부)	수요예배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행정위원 헌신예배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경배와 찬양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말씀 / 정요한 목사 (베드로전서 강해)
▲ 찬 송 Hymn	31장	사회: 배한우 장로 기도: 류홍덕 집사 헌금기도: 이관기 집사 광고: 송명건 집사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72번 아버지 주일	
찬 송 Hymn	305장	
기 도 Prayer	윤우원 장로	
성 경 Scripture	열왕기하 5장 1~7절	토요 새벽기도회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말씀 / 정요한 목사 (사도행전 강해)
설 교 Message	여인의 두 아들	
▲ 헌 금 Offering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찬 송 Hymn	304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